

태풍 '링링' 강타 전남, 신속 복구·피해조사 나서

관통한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파손 등 피해 최대
태풍 비켜간 완도 양식어가·일부 지자체 '안도'

전남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 응급복구에 나섰다.

태풍 '링링'은 지난 7일 오전 목포 서쪽 약 140km 해상에서 44km로 지나면서 신안 가거도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하는 등 흉도 43.9m, 진도 서거차도 40.7m의 강풍이 불었다.

또 무안 해저 124mm, 지리산 구례 성삼재 122.5mm의 비가 내리는 등 전남지역 평균 강우량이 51.7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진도 고군 해안도로 등 4개소의 도로 일부 유실, 목포·나주 등에서 가로수 전도 및 교통 신호등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농수산물 피해도 잇따라 해남·강진·나주·보성·영암·장성 등에서 비 28.4ha가 쓰러졌다.

또 나주 배 농가 465ha를 비롯해 영암·영암·보성·신안·구례 835ha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남·무안 등 비닐하우스 피해도 1.6ha에 달했다.

강풍 등으로 인해 16개 시·군 1만5886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5개 시·군에서 73동의 주택이 파손됐다.

태풍이 관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신안군은 우선 복구가 가능한 피해 현장부터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으며, 군청 및 읍·면 직원들과 함께 전담반을 편성해 정확한 피해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 등 공무원들이 나서 7일 오후 지도·중도·임자지역을 찾아 피해농가를 위로했으며, 8일부터는 암태·자은·안좌·팔금·비금·도초·흑산 등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번 태풍으로 공공시설 다목적 부잔교 파손 3개소, 가거도항 방파제 옹벽 100m 유실, 암태 오도선착장 피복석 유실, 교통안전 시설물 10개소, 가로수 전도 794주, 사유시설 주택 및 부속건물 파손 34등이 집계됐다.

또 농작물 피해 76ha(배 낙과 55, 벼 도복 20, 두류 유실 1), 어선전수 및 유실 10척, 전복·우럭 가두리 25조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군은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완도 노화·보길도 등 전복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에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 양식시설 파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도군청 한 직원은 "지난해에는 양식시설들이 무더기로 파손돼 바닷가로 떠밀려들 정도로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며 "올해는 태풍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작년만큼의 큰 피

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태풍으로 벼 도복 376ha, 과수낙과 12ha, 비닐하우스 파손 0.5ha와 가로수 전도, 정전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비슷한 규모의 예년 태풍에 비해 피해가 많지 않았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7일 비닐하우스가 전파된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리 수확 가능한 벼와 배 등을 수확하고, 비닐하우스를 결박조치한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태풍피해 조사와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태풍 '링링'의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속히 조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체계를 운영해 재해보상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오는 14일, 사유시설은 17일까지 피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태풍이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음에



7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파도에 휩쓸려 온 각종 건설자재와 비위들이 수거되고 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행안도로 초사리 방향 20m가 유실됐다.

도 불구하고, 도민을 비롯한 도와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이 합심해 대비한 결과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 조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필요한 곳에 대해선 항구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보성관내 6개 농·축협, 고령운전자 안전모 보급



경찰서에 160개 전달

보성관내 6개 농·축협은 지난 6일 보성경찰서에서 농촌지역 이륜차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모 보급에 나섰다.

서희수 농협보성군지부장과 보성농협 등 6개 농축협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행사는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주 이동수단인 이륜차 및 사발이 운행으로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다치는 사례가 많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모 160개를 제작해 보성경찰서에 전달했다.

차복영 보성경찰서장은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달받은 안전모는 관내 저소득층 고령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해 농번기 교통사고 예방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문병안 보성군농협운영협의회 회장은 "최근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이륜차 및 사발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안규일 기자

강진군, 미래 10년 대비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

강진군이 지난 6일 내년도 군정을 이끌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군수 주재로 '2020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규시책 보고회는 민선7기 군정 슬로건인 더불어 행복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중앙부처 및 도역점시책(블루 이코노미), 지역 현안과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부서별로 발굴된 신규시책은 총 169건으로 유형별로는 신규사업 71건, 공모사업 31건, 현안사업 67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수

산 분야는 식품가공 산업 집중 육성,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등이 논의되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돌봄센터 설치,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치매환자 가족 통합관리지원사업 등이 검토되었다.

강진군은 확정된 시책은 2020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특히 신규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